

## 10번째 프로그램 - anaconda

수강 중인 수업 중 웹/파이선 수업의 텀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항상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때마다, 윈도우즈로 돌리기 위해 컴퓨터를 끄고 끄는게 귀찮아 리눅스에도 아나콘다를 깔아주려고 한다. 우선 아나콘다 홈페이지에서 linux 버전의 파일을 다운받아주었다. 터미널 창을 열어 cd Downloads/를 통해 다운로드 폴더로 접근 후 bash (다운로드 받은 파일.sh) 입력을 통해 설치 해주면 된다. 여기서 enter 로 줄줄이 읽어가다보면 yes/no 를 선택하는 순간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yes 를 해주었다. 이후 아나콘다 설치에서 생긴 환경 변수의 변경을 적용하기 위해 source ~/.bashrc 명령어를 통해 bashrc 를 읽었다. Conda search python 을 통해 설치된 파이선 버전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한 후 난 최신 버전의 파이선 3.8.3을 설치해주었다.

```
python 3.8.3 hcff3b4d_0 pkgs/main
(base) seongho5356@seongho5356-930QAA:~$ conda remove -name py356--all
Collecting package metadata (repodata.json): done
Solving environment: failed

PackagesNotFoundError: The following packages are missing from the target environment:
- py356--all

(base) seongho5356@seongho5356-930QAA:~$ conda remove -name py356 --all
(base) seongho5356@seongho5356-930QAA:~$ conda create -n py383 python=3.8.3
Collecting package metadata (current_repodata.json): done
Solving environment: done

Do you accept the license terms? [yes|no]
[no] >>>
Please answer 'yes' or 'no':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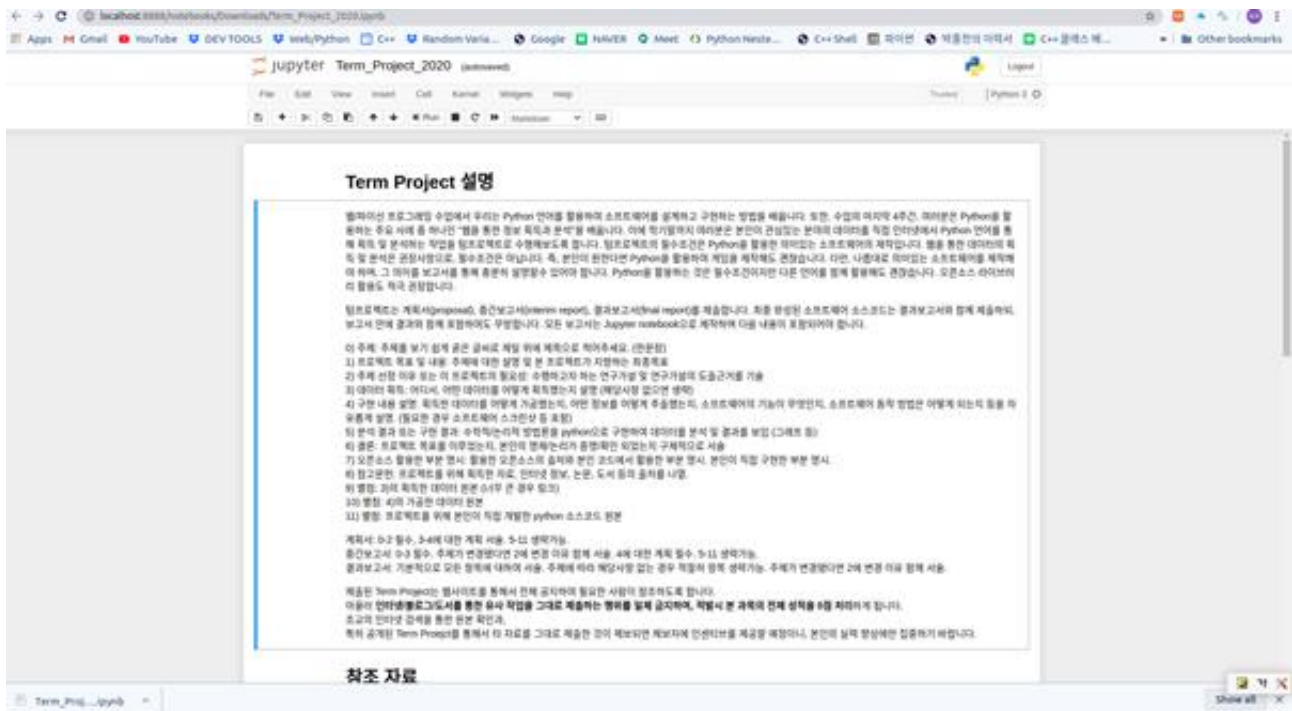
보면 conda remove -name py356--all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로 전에 이미 설치한 버전의 파일을 전부 삭제할 수 있다. 이후 conda activate py356, conda deactivate 로 실행하고 종료할

```
seongho5356@seongho5356-930QAA:~$ cd Downloads/
seongho5356@seongho5356-930QAA:~/Downloads$ Anaconda3-2020.02-Linux-x86_64.sh
Anaconda3-2020.02-Linux-x86_64.sh: command not found
seongho5356@seongho5356-930QAA:~/Downloads$ sha256sum Anaconda3-2020.02-Linux-x86_64.sh
2b9f088b2022edb474915d9f69a803d6449d5fdb4c303041f60ac4aefcc208bb Anaconda3-2020.02-Linux-x86_64.sh
seongho5356@seongho5356-930QAA:~/Downloads$ bash Anaconda3-2020.02-Linux-x86_64.sh

Welcome to Anaconda3 2020.02

In order to continue the installation process, please review the license agreement.
Please, press ENTER to continue
>>>
```

수있다. 그러나 jupyter notebook 명령어줄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는 게 가장 편리한 것 같다.



텀프로젝트에 관련된 파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새로 다운 받았다.

그러나 현재 python3.8.3만 설치 했지 때문에 new notebook 을 생성할 시 python3만 선택 가능하다.

느낀점

가장 먼저 느낀 건 더이상 jupyter notebook 을 통해 실행파일을 작성할때 굳이 윈도우즈로 다시 부팅해야할 필요를 덜었다는 것이다. Visual studio code 를 설치할 지 말지 고민하던 내게 주피터 노트북은 하나의 해결책이 되었다. 또 윈도우즈에서는 주피터 노트북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선 아나콘다를 실행 한 후에 주피터 노트북을 선택해서 들어가야했다, 그러나 우분투에서는 터미널 창에서 jupyter notebook 명령어 입력을 통해 바로 접근 가능한 점이 매우 편리한 것 같다. 그러나 객체지향프로그램 수업을 위해서는 visual studio code 도 설치가 필요할 듯 하다.